

대행 스님

진짜 사랑을 하려면 마음으로 항상 같이 불이 들어오게 관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아무튼 태양이라든가 그 옆에 수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이 우주라든가 또는 은하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결부돼 있거든요. 결부돼 있는데, 만약에 어느 것이 수명이 다 돼서 타 버린다든가 팽창된다든가 이런다면 우리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생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같이 전멸하게 되는 이치가 또 있다 이 소립니다.

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뿐만 아니라 불성의 세계 모든 데서 자동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이게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작용하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에서, 아니 한국이라고 합시다. 일본도 그렇고 영국이나 뭐, 다 있지마는,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면, 조그마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마는 큰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딴 데서는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물에 없어지기도 하고, 불쑥하게 솟았던 것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가라앉았던 게 불쑥 솟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붙을 데 또 그냥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잘못 어긋나게 붙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고 온통, 때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움죽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도 움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리드해 나가는데 어떻게 리드해 나가야 되느냐? 부처님 법은 이렇게 한다도 없고 저렇게 한다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고정되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다 닥치는 대로 대치해 나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함이 없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다 하고 하는 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으면 그대로 함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대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아파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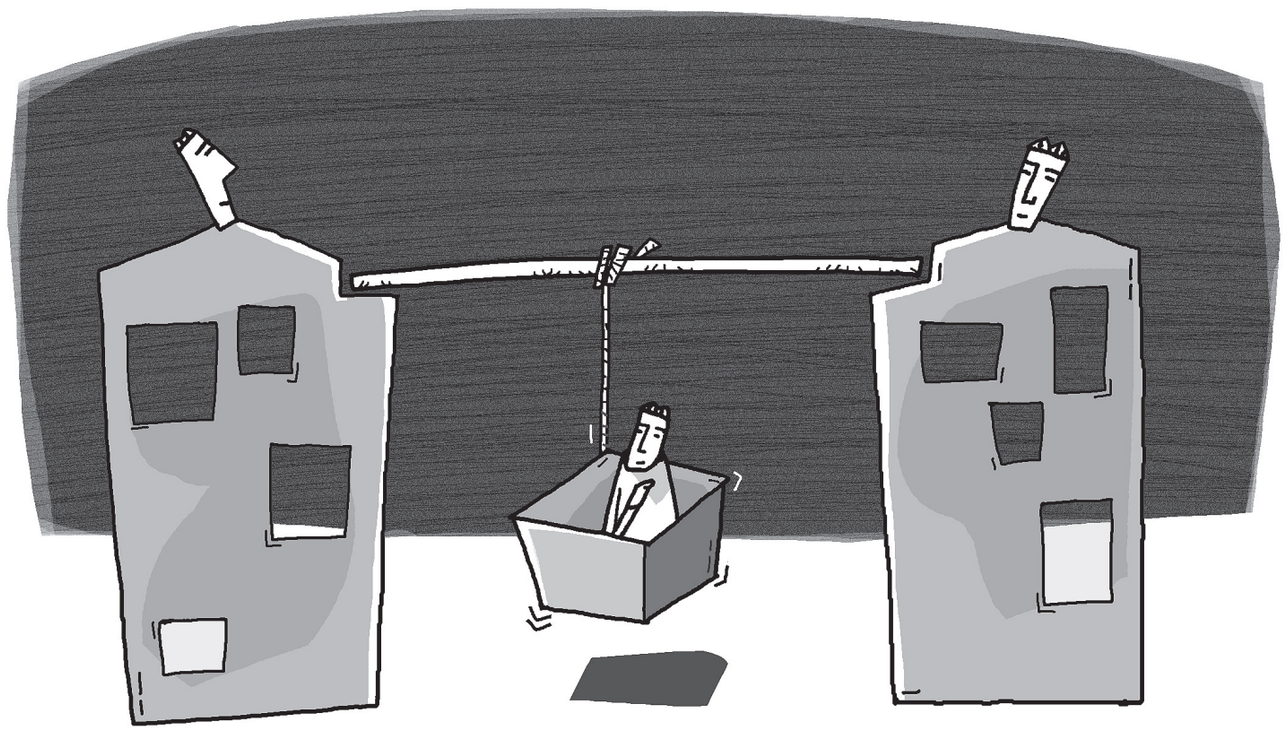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삼풍백화점에 그 난리가 난 것도 바깥으로만 끄달리고 자기 콩씨는 짐작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침착하게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벌써 이런 공부 하는 분들은 진짜로 자기 콩씨를 믿고 그런다면은 그렇게 무너지게 짓지도 않겠지만 어느 옆이 잘못됐으면, 벌써 통하게 되죠. 통하질 못하면 하다못해 꿈으로라도 그냥 보여 줘요.

이런 예가 있죠. 집을 짓는데 이 공부 하는 사람의 꿈에 그러더랍니다. "야! 이쪽이 잘못됐으니까 이쪽을 봐 봐. 가서 봐 봐. 거기를 한번 이렇게 헤치고 봐 봐!"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뭐가 딱 그냥 모래하고 양회가 같이 들어가서 콱 메워져서 그냥 요지부동이더랍니다. 그거를 만약에 다 해놓고 그랬으면, 집 반쪽을 다 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됐으니까 아주 탄복을 했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부 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콩씨가 콩싹을 형성시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산다고 아주 그냥 야단들이거든요. 자기가 사는 게 뭐 있습니까? 물 한 모금을 먹어도 혼자 먹지 않고 더불어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서로서로 먹고 사는데. 이거는 과학적이기도 하고 천문학적이기도 하고 의학적이기도 하고,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느 과목이든 들어가지 않는 과목이 없어서 심성천체물리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禪)과 학(學)은 둘이 아닙니다. 몸과 자기 불성도 둘이 아닙니다. 콩씨와 콩 싹이 둘이 아니듯이 떼려야 뗄 수가 없죠, 그거는. 콩 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 싹이 없으니깐요. 진짜로 "아이고, 나는 바빠서 할 사이가 없어서 못 합니다." 요러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하하하. 그럴 때 보면요, 난 저절로 웃음이 나고 아주 죽겠어요, 그냥. 허허허. 아니, 세상 살아나가는 게 그냥,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나가는 게 자기가 태어났으면 콩씨가 콩 싹을 형성시켜서, 자기가 또 콩씨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고는 살아나가는데 아이 글쎄, 누가 백일기도를 하랬나, 누가 삼천배 절을 하랬나, 응?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앉아서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증명을 해 줄 수 있어.' 하고 관하고, 또 여유가 없으면 그냥 서서 일하면서도 그렇게 관하고, 앉으나 서나 변소에 가나, 더럽고 깨끗한 게 불법엔 없으니까, 변소에 가나 어딜 가나 자기가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그냥 통하는데 뭐가 바빠서 못 합니까, 글쎄. '난 아이, 바빠서.' 하하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바깥으로만 끄달리던 분들도 안으로 관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내가 있으니깐 모두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콩씨와 콩 싹은 떼려야 뗄 수 없구나.' 하는 걸 생각하시고, 또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업으로 자손을 낳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원수로 자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또 선업으로 자식이 생기는 일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 자식이라는 게. 그렇다면, 자손들도 원수로 태어났다면 말도 못 하게 가슴에 못을 박게 됩니다. 또 선업으로 태어났다면 그 가슴에 그렇게 좋은 결과를 주어서 흥락하게 만듭니다. 또 원수가 아니고 업장으로다가 만났다 이런다 하면, 극하게 그렇게 나가서 그냥 온통 그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녹이려면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려도 아니 됩니다. 말로 한다면 오히려 더 빗나가요. 아주 듣기도 싫어하구요. 그리고 만약에 때렸다 하면은 '아이, 요놈, 때렸어!' 하곤 그냥 또 나가죠. 허허허. 여러분 참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녹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 '업장이 생기게 한 것도 너고 업장이 안 생기게 한 것도 너고, 그러니까 나는 더불어 같이 공했어. 나는 내가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두가 너만이 해결을 할 수 있어.' 그러곤 그냥 딱 거기다가 맡겨 놓고 지켜보기만 하라 이런 겁니다. 개미도 나가서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아는데 어찌 사람이 나갔는데 자기 살 궁리 안 하겠습니까?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